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전자식안정기 ISO 9001 인증 획득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독일의 ISO 인증기관인 TÜV(독일기술검사협회)로부터 전자식안정기(Ballast)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TÜV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된 LG산전의 전자식안정기는 그동안 전량 해외에 수출해왔던 제품으로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Magnetek, Philips, Motorolar 등 선진업체와의 경쟁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ISO 시리즈중 설계, 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은 국내 전자식안정기 업체가운데 LG산전이 처음으로 획득한 것으로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LG산전 전자식안정기의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확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안정기는 형광등을 점등시키고,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LG산전은 지난 '90년에 전자식안정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에 주력했는데 지난해에만 200만개 이상의 전자식안정기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98년 미국시장에서 3대 업체에 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曉星重工業(株), AC 견인 전동기 조합시험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는 최근 지하철용 AC 견인 유도전동기를 차량 전장품 제작사인 우진산전(괴산)에서 차량용 인버터(VVVF)와 조합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AC 견인 전동기는 생산기술개발과제로 한전의 전력연구원에서 개발비를 지원한 국책과제로 1991년 12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약 40개월간 개발한 제품이다.

당사는 80년대초 지하철 2호선에 적용한 견인 전동기를 생산한 실적은 있으나 AC 견인 전동기를 생산한 실적은 이번이 최초로서 AC 견인 전동기는 선진국에서만 생산하는 특수한 전동기로 국내의 지하철에서 서울의 4호선 연장선과 분당선, 5호선에 적용되었으나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지하철의 건설에서 AC 견인 전동기의 채용이 두드러지는 현실에서 보면 국내 기술에 의한 견인 전동기의 개발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95년 상반기에 공장의 자체 시험이 완료되고 일부 부품의 보완을 마친 후 차량용 전장품과의 조립시험을 실시한 것은 인버터의 제어에 대해 견인 전동기가 원활히 동작하는가와 실제 차량의 운전상태를 모의하여 운전하는 방식으로 이는 인버터와 견인 전동기간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견인 전동기 TYPE TEST중의 하나이다. 본 시험에서는 기동부터 최고속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험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특성을 가진 AC 견인 전동기로 호평을 받았다.

現代重工業(株), 콜롬비아에 발전소 전기집진설비 輸出

現代重工業(株)는 콜롬비아에 발전소 전기집진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 국내업계 최초로 남미 환경설비 시장에 진출했다.

현대중공업(주)는 이번에 수주한 설비는 120만달러 규모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북동쪽 150km 지점에 위치한 발전용량 35MW급의 테르모파이빠 석탄화력발전소에 하반기중 설치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WTO출범에 따른 환경규제에 대비, 지난해 환경부를 신설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환경설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 120여기의 집진설비를 공급해온 현대중공업은 지난 87년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소각설비용과 펄프공장용 전기집진 설비수출을 시작으로 지난 '93년과 '95년에는 중국의 비료공장에 설비를 수출하는 등 환경설비 수출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콜롬비아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맥주공장·유리공장등의 전기집진 설비공사를 중심으로 추가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미뿐만 아니라 동남아중국등으로 시장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國際電線(株), 희성전선으로 법인명 변경

국제전선(代表:裴恩出)이 법인명을 이달말부터 희성전선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국제전선은 지난해말 계열사인 희성산업 등이 LG그룹으로 부터 분리, 희성그룹으로 법인명을 희성전선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계획에 나섰다.

국제전선은 이에 따라 21세기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경영혁신활동인 「JUMP 2000」을 추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원자재 및 제품 품질안정, 혁신적인 생산성향상, 물류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전선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ISO 9001 인증획득을 계기로 품질보증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사적인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전선은 특히 올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중국을 포함한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국제전선은 지난해말 한국전기전자시험원으로부터 전력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三興重電機器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三興重電機器工業(株)(代表:趙亭起)는 30년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중전기기업체의 중견기업으로서, 최근 동사에서 생산중인 변압기, 특고압개폐기 및 전력피뢰기등 12개 전품목에 대하여 영국 ASTA사로부터 ISO 9002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회사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끊임없는 개선노력으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아왔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품질관리체제에 국제적 품질보증 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를 접목시켜 삼흥 고유의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외의 지명도가 높은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서 동사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보증시스템의 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모든 제품 및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한번 확인 했다.

三興重電機器工業(株)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92년부터 한전기술지원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무공극형 피뢰기용 산화아연 피뢰기 소자 개발을 착수하여 4년에 걸쳐 3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한데 이어 다수의 중전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안 제2공장을 설립하고 피뢰기 시험용 대전력시험기등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제반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금번 ISO 9002 인증 획득은 변화하는 국제 조류에 발맞추어 세계속의 초우량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일로 평가 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품질 보증활동을 더욱강화하여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품을 공급 하는데 노력을 주력할 것이다.

振興會 토요일 근무제 실시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3月부터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시행은 최근 정부 및 산업계에서 토요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 및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실시케 되었습니다.